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최종 합의 나올까

6자 협의체 오늘 광주서 첫 회의
대통령실 중재안 기반 실무 논의
시 1조원 지원 약속 이행방안 등
상호 입장 공유...결과 귀추 주목

대통령실 주도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TF)'가 17일 광주에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달 대통령실과 광주·전남·무안군 지

자체장 간 사전협의에서 중재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광주·전남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무안군·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가 참여하는 광주 군공항 이전 6자 협의체 첫 회의가 17일 광주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가 공식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9일 김용범 대

통령실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관련 사전협의의 후속 절차다.

회의에서는 무안군 지원 방안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사전협의 당시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장기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고, 광주·전남·무안군은 큰 틀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정부 중재안에는 무안군이 요구해 온 공도 방식의 군공항 이전지역 선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무안군의 군공항 이전 수용을 중심으로 한 조정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무안군이 요구한 3개 선결 조건 조정,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지원 약속 이행방안 마련, 정부 차원의 국가산단 조성 등 지원책 검토, 광주 민간공항 선(先) 이전 추진 등이다.

사전협의 이후 무안군은 실무팀을 꾸려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 시기 검토, 광주시 재정 지원의 구체화, 정부 지원책의 적정성 검토 등을 중심으로 6자 협의체 회의를 준비해 왔다.

특히 민간공항 선 이전과 관련, 호남고속철도 2단계 완공에 맞춰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광주시, 국방부 등과 함께 공동합의서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의 1조원 규모 주민 지원 재정 확보를 위해선 지원금 보

장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신규 지원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의 무안 지원 패키지화 관련, R E100 국가산단 조성, 인공지능(AI) 첨단농업 복합지구 조성 등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정부 중재안을 토대로 실무 검토를 이어 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협의체 논의 결과가 향후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의 해결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분이라도 합의가 이뤄질 경우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제 추진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2면에 계속 /번은진·양시원 기자



“나주, 국제 과학도시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념행사가 16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나주, 인공태양을 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대표이사, 지역 대학·산업계·연구계 인사, 유치위원회 위원, 도민 등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래리 기자·조영권 인터넷기자

“에너지·AI 수도 호남, 대한민국 판 바꾼다”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환영식
금지사 “호남 초광역 과학경제동맹 구축”

전남도가 1조2천억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시설 나주 유치를 발판 삼아 호남권 초광역 과학경제동맹 구축에 나선다.

전남도·나주시는 16일 오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와 나주시가 국비 1조2천억원 규모의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공식

기념하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 비전을 200만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전남 나주, 인공태양을 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기념행사에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지역 대학·산업계·연구계 인사, 유치위원회 위원, 도민 등 900여명이 함께했다.

전남도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 최초의 핵융합 전용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300개 연관 기업 유치, 1만명 고용 창출, 10조원 규모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는 김영록 지사가 총괄하고 나주시장·경제부지사를 공동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대정부 협력 창구를 단일화하는 한편, 예타 대응 및 연구시설 조기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나주시, 지역 대학교와 손잡고 '원팀'으로 인공태양 연구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되고 첨단 산업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도록 조정 역할을 총동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대독한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모이는 국제 과학도시, 과학이 산업이 되고 돈이 되는 미래 첨단도시, 청년 인재가 일자리를 찾아 가족과 함께 돌아오는 지방소멸 극복 선도도시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AI수도로 우뚝 서게 됐다”며 “오픈AI와 SK,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이 전남에 몰려오고 있으며 더 많은 기업,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신호탄으로 호남이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겠다”며 “전남의 AI와 에너지를 양 날개 삼아 전남·광주·전북이 대한민국의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호남권 초광역 과학경제 동맹으로 비상할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김재정 기자

도의회,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의결

전남도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의결했다.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은 광역연합을 추진할 사무와 운영방향, 사무개시일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0월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을 심사했지만 보류한 바 있다. 당시 의원들은 광역연합 의원 구성 비율을 문제 삼았다. 내년 전남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운영 예산 15억원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내년 초로 예상했던 광역연합 출범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날 규약안 의결로 광역연합 구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에 규약안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친 뒤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해 광역연합 출범을 준비하는 한편, 삭감된 예산 15억원은 특별회계 조례 제정 이후 내년 초 추경을 거쳐 확보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2025

광주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공유의 날

일시 2025. 12. 19. 10:30~16:30 장소 광주TP 과학기술동 12층 국제회의실(1부) 및 본부동 대회의실(2부)

참석대상 광주광역시, 광주시의회, 산학연관 관계자 등 150명 이내

1부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공유>	2부	<정책토론회: 지역산업육성 거점기관의 역할과 비전>
10:30~11:00	• 오프닝 • 개회사, 국민의례, 내빈 소개 • 기념 사진촬영	14:00~16:30	• 개회사 및 인사말씀 • (발제) 테크노파크의 기능과 역할 / 테크노파크 운영사례 • 정책토론(전문가토론) • 폐회 및 마무리
11:00~14:00	• 2025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주요 성과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 우수사례 발표 • (전시장 라운딩) 성과 홍보물 및 제품 전시		

※ 세부 일정은 행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주관

광주테크노파크

RIIA

광주지역산업진흥원